

# 2026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문서번호			
결	담 당	사무국장	이사장
재	 박수진	 김혜영	 방지영
협	경영지원팀장		비고
조	 임혜숙		

- 일 시 : 2026년 4월 20일(월) 14:00
- 장 소 : 혜화동주민센터 자치회관
- 참 석 : 재적(대의원)구성원 152명, 참석 65명, 위임 26명, 불참 61명
- 의 장 : 방지영((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재적(대의원)인원 152명 중 참석 54명, 위임 26명으로 총 80명으로 성원 구성
  - 구 성 : 정관 제4장(총회) 제20조(구성)에 따라 회원으로 구성
  - 성 원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거 성원

## 2. 묵념(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인 선영)

## 3. 개회사

## 4. 의결 사항

-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
  - 의 결 :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항에 의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내용	찬성	반대	무효	기타	결과	비고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	58	5	0	2	가결	제척 : 방지영 기권 : 이상전

※ 회의 전문

주제	내용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	<p><b>방지영(의장)</b> 본인의 제척 사유(이사장 본인 연임의 건)로 부이사장 중 연장자인 김영배 부이사장이 본 안건에 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함</p> <p><b>김영배(의장 직무대행)</b> 2027년 세계총회를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2027년 2월에 16대 집행부 임원 선출과 현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있음. 사업의 연속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현 이사장의 임기 1년 연장을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2026년 2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공정한 바 있음. 본 의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집 참고를 요청드리며, 정관 제17호 제1항에 의해 총회 의결을 통해서 시행 될 예정임. 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을 상정하며, 투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의견 나눔 시간을 갖고자 함.</p>

주제	내용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	<p><b>김병호(극단 즐거운사람들)</b>            주요 내용에 보면 차기 이사장 선출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전체 임원 개선이 되는 것인지?</p> <p><b>김영배(의장 직무대행)</b>            차기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부이사장, 감사) 예정. 현 이사장이 1년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 현재 임원이 1년 그대로 유지되어 세계총회 정산까지 집중하고, 당선인의 집행부는 국내 일반 업무와 중장기적 비전 수립에 집중. 27년 2월에 선임되는 집행부의 임기는 28년 2월부터 시작되어 4년간 역임.</p> <p><b>이진영(극단 찰리)</b>            내년 세계총회의 원만한 진행과 성공을 위해서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 지난번에 본인은 반대의견 표출하였고, 현재도 동일한 의견임.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략히 다시 이야기 하겠음.            아시테지 운영의 원칙이나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반대. 절차적 예외를 허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며 시스템과 집단의 역량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읽히기는 하지만 반대임. 첫째로 이 안건의 이유가 ‘특별한 사정’인데, 외부에서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 같으나 외부의 의견이 아시테지에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함. 둘째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논리라면 2년, 3년도 연장하고 오히려 단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음. 임기라는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함. 셋째로 총회에서 표결로 승인하면 민주적 절차가 완성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 거 같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가 그동안 서로 약속한 규칙과 회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꾸준히 지켜온 민주주의가 있는데, 특정 사안 때문에 40여년 간 지켜온 것을 다수결로 정당화한다는 것이 동의하기 어려움. 현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내년 세계총회를 예술감독으로 수행한다는 건데, 예술감독의 역할이 부족하면 이사장 역할로 함께 권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지지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행해 왔던 절차대로 다시 선출되어서 정당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수행하고 1년 마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봄. 1년 연장을 하고 당선인은 그대로 선출하여 1년동안 교육 내지는 교류 차원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사장-부이사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는 필요시 부이사장이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사퇴하더라도 1년 동안 러닝메이트였던 부이사장이 충실히 배우고 익혀서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하는게 우리가 그동안 약속하고 지켜왔던 절차고 정당성이라고 생각함. 본인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일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인 아닌가함.</p> <p><b>도기륜(극단 놀이터)</b>            앞서 이진영 대표께서 원론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음. 다만 같은 말을 이진영 대표가 아닌 내년에 출마 예정자가 했다면 더 공감이가 있을 것임. 지금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현재는 돌발상황임. 이진영 대표가 내년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p> <p><b>이진영(극단 찰리)</b>            본인의 출마 여부가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였으니 대답하자면 출마하지 않음.</p> <p><b>도기륜(극단 놀이터)</b>            질문한 이유는 같은 이야기지만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원론적인 이야기고, 내년 출마예정자가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참여 의견이 되기 때문임. ‘어떤 계획이 있을테니 반대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원론적일 뿐 발전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함.</p> <p><b>우상전(원로회원)</b>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때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뭔가를 확실하게 발언하지 않으면 의견을 듣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음.</p>

주제	내용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1년 임기 연장의 건	<p><b>우상전(원로회원)</b></p> <p>‘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 인정하자’라거나 해야지 결정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것이 없는데 어떤 음모가 있는 것 아닌지 이런식으로 된다면 이야기가 이상해진다고 생각함.</p>
	<p><b>박영희(극단 문)</b></p> <p>본인은 2002년도 세계총회 때 아르코대극장에서 공연을 직접 보고 어린이 공연의 중요성과 이 분야에 몸담아야겠다는 걸 몸소 체험했음. 그리고 현재 2026년인데, 세계총회는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큰 행사임.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정말 잘 진행해 줄 이사장이 필요하고, 물론 다른 분들이 잘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맞추려면 약간의 변칙성일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국회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국회법을 조정하기도 함. 40년 전에 있었던 아시테지의 법규는 40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음. 그것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임.</p>
	<p><b>한혜수(화성에서 본 지구)</b></p> <p>개인의 영달을 위해 1년 임기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를 함에 있어서 앞서 우상전 원로 회원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변질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보고 싶음.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맡아서 시작해야 하는데 몇 년간 준비해온 일들을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에서 몇 번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음. 세계총회를 잘 꾸려보자는 의미이고, ‘세계총회만 할 것이냐 하는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임시 총회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시테지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어린이 청소년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붐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기 연장 건에 찬성함.</p>
	<p><b>김영배(의장 직무대행)</b></p> <p>회원분들의 말씀 잘 들었으며,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함. 찬반 투표 혹은 거수의 방법이 있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면 투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음(찬반 투표 삼청으로 결의).</p> <p>투개표의원으로는 감사 한 분을 포함해 3명의 회원을 추천받아서 진행하고자 함.</p> <p>※추천선정인 : 기태인(감사), 도기륜(극단 놀이터), 김봉석(극단 마네트), 한혜수(화성에서 본 지구)</p> <p>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음. 신분증 지참하시어 명단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하시면 됨. 임기 1년 연장에 찬성하시는 경우 찬성에 도장을 찍고, 연장 반대하시는 경우 반대에 도장을 찍으면 됨.</p>
	<p><b>(투표 및 개표 안료)</b></p> <p>본 총회는 정관 제4장(총회) 제23조(의결정족수) ①에 따라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참석 54명, 위임 26명)으로 개회하였으며, 성원보고 이후 참석자까지 포함하여 총 65명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출석회원 65명 중 63명이 투표하였으며(제척:방지영, 기권:우상전) 연임 찬성 58표, 연임 반대 5표, 무효 0표로 투표 결과에 따라 제15대 집행부 이사장 연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함.</p>
	<p><b>김혜영(사회자)</b></p> <p>투표 결과에 따라 제15대 집행부 1년 임기 연장이 가결되었음. 제16대 임원 선거는 예정대로 27년 2월에 진행될 예정임. 방지영 이사장께 임기 연장에 따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p> <p><b>방지영(의장)</b></p> <p>열심히 하라고 시간을 연장해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음. 오늘 임시 총회는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사진들이 숙고한 결과 강력하게 진행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었고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서 진행되었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세계 총회가 잘 될 것 같음.</p>

## 5. 보고 안건

### ■ 2027 세계총회 관련 세부사항 설명의 건

주제	내용
2027 세계총회 관련 세부사항 설명 의 건	<p><b>방지영(의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원조성</b> : 지금 어떤 예산처(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민간단체에 직접 축제 예산을 주는 곳이 없음. 문체부와 오랫동안 이야기해오며 유인촌 장관 시절에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시기상의 문제로 불발되었고, 현재는 진행하고자 하나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기금 사업일 때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보조금의 경우 예술계에 맞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문체부에서 이번 세계총회 사업은 기금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신청을 위해 함께 뛰어들고 있는 상황. 오늘까지 1차 서류를 문체부에 전달하고, 5~6월 동안 매우 상세하게 보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li> <li>국가 보조금은 20억이 넘으면 3년 전 국가 승인이 필요하므로 19억을 목표로 해야 하고, 그 다음 매칭으로 도와 시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6.3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아직 도움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현재 수원시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대체적인 공간들의 70%가 수원시 관할이어서 지난주부터 공간을 답사하고 관계자들과 만나서 공간 협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머지 30%는 경기도 관할로 선거 이후에 상황을 보고자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관계자 인맥을 통해 판을 짜고 있는 중임.</li> <li>첨언 : 월간 한국연극지에 보조금 관련하여 꼭 해결하고자 글을 기고하였으니 나중에 꼭 읽어주셨으면 함.</li> <li>- <b>진행장소(안)</b> : PPT 내 수원시내 사이트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일정표(안)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트0 : 수원컨벤션센터(총회장소)</li> <li>· 벨트1 : 경기아트센터+아외음악당(개막행사)+청소년청년재단</li> <li>· 벨트2 : 경기상상캠퍼스(전문가 교류 프로그램)</li> <li>· 벨트3 : 정조테마공원+팔달문화센터</li> </ul>                         예산의 범위에 따라 탄력 있겠지만 최소 25개에서 최대 35개 꼭지의 사업 및 공연을 진행하고자 함 이외 인근 숙박시설을 리스트업 중이며, 벨트0~1은 공항버스 라인으로 교통편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li> <li>- <b>개요 및 공모일정 변경사항</b> : 세계총회는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총회,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총회는 임원 개선 총회로 현 이사장의 연임 의사가 없으므로 새로 뽑힐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이사회 내부 의견을 모아 황하영 회원을 해외 이사로 추천할 예정임.</li> <li>·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도 공모로 진행될 예정</li> <li>· 공연은 기존 5월 1일 마감에서 회의를 통해 해외 공연은 한 달, 국내 공연은 8월 말로 연장하고자 함. 상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li> </ul> </li> <li>- <b>해외공연 심사(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공연은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 700~1,000건까지로 예측하고 있음.</li> <li>1차 심사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며,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당 50건 정도를 6월 한 달 동안 심의하는 형태가 될 예정임. 전문심사위원 1명+협회원 2명으로 총 3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1차 심의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며 2차부터는 본부와 연합하여 심의 예정. 심의를 희망하는 분들은 공모가 열리면 신청해주시기를 바람. 아시테지 인터내셔널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걸 회의하면서 느끼는데, 심사에도 적용됨. 1,2,3차 심의를 거치며 아쉽게 떨어뜨린 작품이 있다면 다음 차시 심사에 다 올려서 뭔가 부족할 때 다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함.</li> <li>또한 대상 연령의 분포, 장애 관객을 충분히 고려하는지, 장르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캐치 프레이즈인 '용감한 미래 : 어린이의 목소리, 아시아 그리고 가능한 세계들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해주시기를 바람. 구성된 심사위원분들과는 워크숍 등 온라인 회의 후에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본부의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임</li> </ul> </li> </ul>

주제	내용
2027 세계총회 관련 세부사항 설명 건	<p>- 프린지 계획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프린지 섹션을 진행하고자 하니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운영위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람. 보통의 프린지는 심사없이 누구나 참가하는 형식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김. 이런 고민을 나누고 새롭게 기획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음. 한국에서 하는 총회이니만큼 모두가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li> <li>· 이 외에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에서도 장애 어린이 대상 연구와 함께 해야할 역할들을 고민해주고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저희 쪽에서 구성한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미래 정책 연구를 시작할 예정임. 이 결과물을 가지고 27년 이후의 대한민국에 어떤 어린이 예술 정책이 있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러한 과정들은 정리 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예산은 12월에 확정되고, 2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모든 것이 예산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함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음.</li> </ul>

■ 개인·단체회원 통합 관리 방안과 회비 조정의 건

주제	내용
개인·단체 회원 통합 관리 방안과 회비 조정 건	<p>방지영(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내용은 지난 총회에서 의결 및 보고된 바 있으나,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자 함</li> <li>·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격차가 심한 관계로 개인회원 회비 상향 조정</li> <li>·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원에서 단체회원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드릴 예정임</li> <li>· 개인과 단체로 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사외이사의 질문이 있었고,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협회의 특성상 회원 유형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li> </ul>

6. 기타 안건 및 토의

주제	내용
기타	<p>최지영(어린이청소년극IN 편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청소년공연 아카이빙을 위하여 시작·활동·성취·지향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 인터뷰지 메일 예정.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li> </ul>

7. 폐회

본 의안 및 경과요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2026. 4. 20.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의장 이사장 방 지 영

